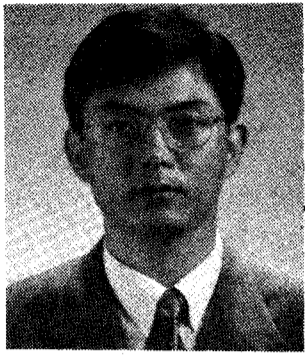


경희 동문, 김대중 당선자에게 바란다

정권교체, 21세기 '새나라' 건설의 기회로



황승연 (사회학과 교수)

처해 있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성장의 기적을 일군 나라이다. 지금 명퇴다. 조퇴하다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과 불안해 하는 사람들, 이들 덕분에 우리가 이 정도의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산업화가 이제는 정보화라는 패러다임으로 바뀐다는 것과 경제의 구조화대를 소홀히 평가하였다. 정보화는 세계화를 동반하게 된다는 것과 경제구조가 커지면 뛰어난 리더십이 아니라 시장경제라는 시스템으로 나라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이해가 부족하였다. 이리하여 현재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의 회복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정 또한 우리나라가 실패하지 않고 발전해 오도록 균형을 유지해 주던 힘이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교역량이 세계 12~3위를 다투게 되면서 우리는 세계 속의 한 국가로 변해갔다. 그러나 이렇게 성장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옛 방식, 넘어서서 이제는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에 이미 와 있다. 이제 열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선배 세대 분들의 열정으로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제는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시스템과 인도가 있어야 한다. 열정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합리가 지배

한다. 시스템은 다음 정권에 물려 줄 수 있지만 열정은 물려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가 힘이다. 그러나 정보를 모으는 것보다 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더욱더 힘 있는 것이다. 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고서는 안된다. 시스템적 마인드를 갖고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대통령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 열정으로 살아온 세대에겐 인기는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인기는 거품이다. 현재의 인기보다는 5년 후 퇴임 때의 인기가 더 나아야 후세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더 중요하다. 거품과 같은 인기에 전혀 개의치 말고, 후세가 열정이 아닌 시스템 속에서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21세기형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란다.

야 한다. 시스템은 다음 정권에 물려 줄 수 있지만 열정은 물려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가 힘이다. 그러나 정보를 모으는 것보다 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더욱더 힘 있는 것이다. 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고서는 안된다. 시스템적 마인드를 갖고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대통령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 열정으로 살아온 세대에겐 인기는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인기는 거품이다. 현재의 인기보다는 5년 후 퇴임 때의 인기가 더 나아야 후세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더 중요하다. 거품과 같은 인기에 전혀 개의치 말고, 후세가 열정이 아닌 시스템 속에서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21세기형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란다.

열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나라돼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에 대한 역사적 의미는 새삼 논의할 필요가 없지만 대통령 당선자가 우리학교 동문의 한 분으로서 사학에서는 처음으로 대통령에 취임하시는 일에 대해 우리학교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할 때 큰 기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기쁨과 책임감으로 몇가지 바람을 적는다. 우리나라가 현재 경제위기에

따라서 이의 회복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정 또한 우리나라가 실패하지 않고 발전해 오도록 균형을 유지해 주던 힘이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교역량이 세계 12~3위를 다투게 되면서 우리는 세계 속의 한 국가로 변해갔다. 그러나 이렇게 성장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옛 방식, 넘어서서 이제는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에 이미 와 있다. 이제 열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선배 세대 분들의 열정으로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제는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시스템과 인도가 있어야 한다. 열정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합리가 지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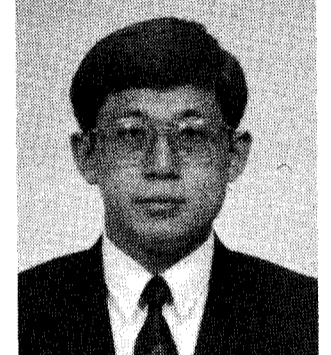
하는 사회분위기가 요구된다. 정치는 합리에 의해 지배되고 명분보다 국제화된 사회에서 통용되는 논리와 그속에서 언어지는 실리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 우리사회에 아직 많은 모순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행과 개인들의 이해관계를 때문에 고치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경제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예견된 일이었

는 합리가 지배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또 정보화는 합리화가 그 핵심이고, 국제화는 시스템화가 그 핵심이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주장은 지금까지 열정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격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야당할 때는 열정으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정에 책임을 지는 여당을 할 때는 시스템으로 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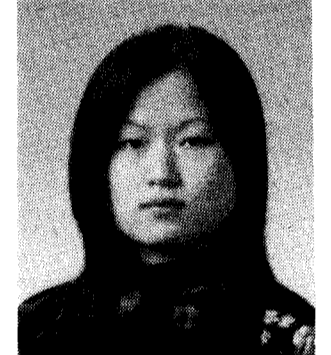
자율적인 학사행정위반 교육정책 기대

헌정 이래 최초로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룩했다. 이는 우리 정치사의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발전이 작은 한 표를 행사한 민심의 승리를 상징한다. 더욱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정통파중심의 한 분이며 필자도 우리 대학의 일원으로 서 큰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김 당선자는 지난 70년 우리대학에서 경영대학원을 수료했으며, 오늘 명예 경제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음으로써 명실공히 우리 대학 출신의 대통령이기도 기쁨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이제 25일이 아닌 새로운 정권이 탄생한다.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동문 후학의 한 사람으로서 몇가지 바람을 적어본다.

태는 일단 모던했다. 앞으로 재임 중에도 난국을 헤쳐나가고 무너진 경제를 살리는 선봉장이 되어주시길 당부한다. 위기는 또다른 기회라는 속담이 있듯이 작금의 위기상황은 새정부에게 어려운 시련인 만큼 변화와 개혁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0여년 동안 여당 독재와 영남권, 군출신들에게만 나라가 운영되어오면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한편 폐쇄도 컸다. 망국적인 지역감정은 말할 것도 없고 학연, 지연 등으로 인한 부정과 부패가 나라를 망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김 당선자께서는 이번 경제위기를 기회 삼아 이러한 재벌경제와 정경유착의 구조를 개혁해 나가기를 바란다.



김준현 (서울캠퍼스 기획조정실)



이수정 (식공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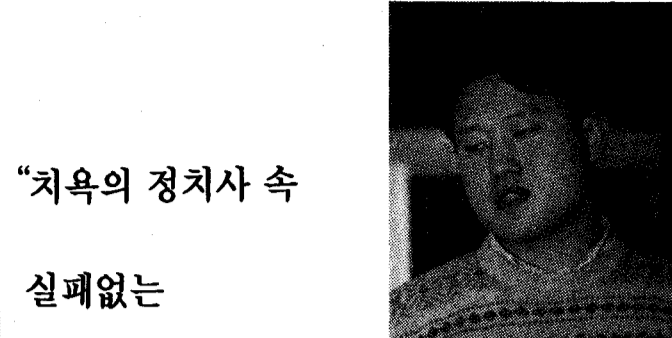
과 그 대학 출신이 거의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구조적 병폐를 낳았다. 그러나 김 당선자께서는 정치권에서부터 지역과 출신학교를 불문하고 두루 인사를 반영할 것을 믿는다. 마지막으로 대학교육이 정치와 사회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펼칠 당부도 있다. 이제 대학에 관련된 교육의 발전보다는 오히려 장애가 되었으며 정적이 지나치게 자주 바뀐 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대학이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고 자율적인 학사행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을 추진해주시길 부탁한다.

이 시작되고 있는 각 산업 부문별 구조조정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것도 막중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전 세계와의 무한경쟁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경쟁력 있는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 재편이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주도의 경제구조를 시장경쟁에 충실한 민간 중심의 체제로 바꾸는 것도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 현안 이외에도 정치문화 개선과 오랜 숙원인 통일 문제 등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다양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같은 과제들은 때로는 정치권의 이해 대립으로, 또는 대화의 방법과 외교 수완의 부족으로

'준비된 대통령'의 친근한 모습 지켜나가길

민들은 지난 오일쇼크 때보다도 소비활동을 위축시킬 만큼 가계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금모으기 운동' 등 경제난국 타개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이같은 열의는 김 대통령 당선자가 국정운영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미 시작되고 있는 각 산업 부문별 구조조정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것도 막중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전 세계와의 무한경쟁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경쟁력 있는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 재편이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주도의 경제구조를 시장경쟁에 충실한 민간 중심의 체제로 바꾸는 것도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 현안 이외에도 정치문화 개선과 오랜 숙원인 통일 문제 등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다양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같은 과제들은 때로는 정치권의 이해 대립으로, 또는 대화의 방법과 외교 수완의 부족으로

해결되지 못한 것들로 취임전부터 외교대통령으로 일컬어지는 김 당선자의 지혜로운 해법을 기대해 본다. 이미 취임전부터 산적한 국정현안을 해결하는 김 당선자의 활약은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 있으며 국민들은 여기에 크게 안도하고 있다. 각 산업별로 정확한 판단과 함께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모습은 신뢰를 주기에 충분하다.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 김 당선자가 국민들에게 가장 크게 어필했던 것은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친근한 모습이었다. 그런 모습이 퇴임 후에도 길이 국민들의 가슴에 남겼으면 한다. 대선 당시 김 당선자를 선택했던 국민들의 마음이 5년후에도 변하지 않았으면 한다. 아니, 지난 대선에서는 불과 1.6%차이로 2위를 제쳤지만 5년 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원한다. 모든 현안에서 민의를 살피고 반영한다면 민의 어려운 일만도 아닐 것 같다.



정연욱 (동문·영문 88학번)

"치욕의 정치사 속 실패없는 최초의 대통령 되길..."

50년만에 민주적 절차로 이루어진 이번 정권교체는 그간 험난했던 한국의 민주화 운동사에 한 획을 긋는 정치적 대 사건이다.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는 그 자체만으로도 민주주의의 일대 전진이기 때문이다. 또한 변화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드러내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간 야당필패의 역사 속에서 패자는 불행한 자로 그친 것이 아니라 '붉은 용의자'로 필박받고 체제 밖으로 내몰려 회색 시대에 살아야 했다. 이제 정권교체는 패자가 '隱' 적인 필박받던 어두운 역사를 청산하였고 야당이 명실공히 체제 내의 정치동반자로 대우받음으로써 민주적 정당정치가 정착할 수 있는 새 역사를 개창하였다.

우리의 정권교체는 국제적으로도 자랑스런 것이다. 한국의 정권교체는 동북아 최초의 것이기 때문이다. 대만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아직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했다. 일본의 지성들은 한국의 극심한 경제위기에 대해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서구의 지성들은 우리의 정권교체를 보고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확인하며 한국의 민주주의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 이번 50년만의 정권교체는 경제사회의 심층적 변동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여당불패의 신화가 깨진 것은 대마불사의 경제신화가 깨진 경제변동과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정권교체는 영남제별 중심의 계급차별적 성장체제와 이를 조절하던 정치사회 제도의 지역차별적, 가부장적 통제기제 전반에 대한 중시 선언이다. 동시에 그것은 경제, 정치, 사회의 전 영역에서 새로운 행위 유형과 새로운 행위 패턴을 창출하는 출발점이다.

초지일관의 민주개혁 필요 김대중 정부는 낡은 재벌경제 체제와 정치사회적 제도를 제거해야 할 막중한 책무와 더불어 각종 차별을 완화해 21세기의 '새나라'를 건설해야 할 무거운 역사적 책무도 안고 있다. 우리는 다음 정부가 이 책무를 수행할 독창적 정책과 능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

초지일관의 민주개혁 필요

무엇보다 흔들림없는 민주개혁을 초지일관 진행할 것을 바란다. 특히 여소야대의 정치적 상황과 DJT연합정권이라는 주객관적 한계에 머무르지 말고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병행공약, 민주적 시장경제 공약, 민주적 시장경제 공약등을 잘 지켜 나가길 바란다. 다음으로, 7·4남북공동선언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3대정신을 되살려서 91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을 대신한 정권신총리와 김일성 주석을 대신한 연평도 총리간에 합의, 서명한 남북기본합의서를 남북한 국민들의 통일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중인 중앙정부의 축소, 기능의 지방이양과 지역차별을 포함한 각종 인간차별을 없애려는 공약의 이행을 바란다. 이는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자치제의 완전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야 한다. 이에 중앙정치로부터 소외된 소외지역의 국민들을 비롯한 모든 4천5백만 우리 국민이 지역(지방)정치에 적극 참여하여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얼마전 인신위원회에서 내부부를 축소하고 지방자치위원을 위한 부서로의 개편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 정치는 결과와 성패에 대한 책임의식을 행위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정치는 언제나 성공적으로 행위할 능력을 요구함과 아울러 자신의 행위가 미칠 뜻밖의 결과와 파장에 대한 분별력, 즉 좌우와 앞뒤를 잘 살피는 안목과 통찰력을 요구한다. 이제 김대중 정부는 초지일관 민심위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며 치욕의 우리 정치사에서 실패하지 않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경희발전기금 출연내역 및 명단. Fundraising list for Kyung Hee University with columns for donor name, amount, and address.

국제교육원 외국어 강좌 안내. Course schedul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Center including TOEIC, TOEFL, and English classes with times and fees.